
스튜디오 제작 <untitled> 본 녹화 편집 순서용 대본

작가|김태민

컬러바 IN - 10s
테이프 사인 IN - 10s
(광고 들어갈 때 프로그램 CG IN)
1st 광고 IN - 30s
2nd 광고 IN -30s
(프로그램 CG out)
연령고지 VCR IN - 10s
프로그램 오프닝 타이틀 VCR IN

(끝나기 10초 전 FD sign 예정)

프로그램 CG IN

MC 오프닝 멘트

- MC 닷을 올려라! 미지의 세계를 향해~~~!! 탑승객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 untitled >의 안내원 임영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목적지는 없지만, 꿈 하나를 위해 닷을 올리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이 무대의 이야기입니다. 어디로 흘러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래서 더 설레지 않나요?!
- MC 그래서요~ 오늘 여러분이 타신 이 배 이름, 바로 언타이틀드호~! 제목이 없는 배! 제목이 없다는 게 꼭 비어있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팀 하나하나가 이 배의 이름이 되는 거 아닐까요?! 오늘 이 무대 위에 오르기까지, 이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버텨왔을지 저는 지금 너무 잘 느껴지고 있습니다.
- MC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친구들 첫 항해의 바람이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박수하나, 함성 하나가 이 선장들한테는 그 어떤 파도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거든요! 오늘 꿈을 향해 출항을 준비하고 있는 이 친구들, 진짜 살아있는 무대를 보여줄 거라 확신합니다!

MC 이제 첫 번째 팀의 항해를 만나볼텐데 그 전에 이 이름에 대해 얘기하고 싶어요. 오르카(ORCA). 범고래입니다. 범고래는 깊은 바다에 삽니다. 햇빛이 닿지 않고 숨이 막힐 것 같은 어둠 속에서도, 그들은 울음소리를 냅니다. 소리로 말을 걸고, 서로를 찾고, 방향을 잡습니다. 청춘이 그렇잖아요. 빛이 없어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나아가죠. 범고래는 결국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두가 바라보죠. 오르카의 음악이 수면 위로 올라와 오늘 여러분에게 편지로 진심을 건넵니다. 오르카가 부릅니다. <letter>.

아티스트 소개 VCR in/Out

아티스트 로고 CG in/out - 5s

FD sign 후 무대 시작

공연 R/T 약 2min

MC 와... 너무 멋진 무대였습니다. 수면을 벽치고 올라온 밴드 오르카가 건넨 편지의 진심이 시청자 분들께도 충분히 전달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멋지게 첫 항해를 마친 저희 오르카 팀과 간단하게 인터뷰 나눠보겠습니다!

MC 왼쪽으로 빠지면서 아티스트 등장

(간단 Q&A - 유다빈 밴드의 letter를 선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다시 한 번 멋진 무대 보여준 오르카 밴드에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MC 다시 중앙으로 이동하면서 아티스트 퇴장

MC 이번 팀은 항구에서 태어나고 자란 보컬을 중심으로, 모던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밴드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파도처럼 거친 사운드 속에서도 감정을 놓치지 않고 누군가의 청춘과 기억 한편에 오래 남는 잔향같은 음악을 만든다고 합니다. 아 정말 소개 문구만 봐도 너무 기대가 되는 팀입니다. 이번에 선보일 곡은 자작곡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뜻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아 절망할 때가 있잖아요? 이 노래는 그런 일로 절망에 빠진 친구가 무교인데도 하늘에 기도를 하는 모습이 마치 희망의 모순처럼 느껴져 만든 노래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 바로 만나보실까요? 밴드 <이독>이 부릅니다. <Pray>!!

아티스트 소개 VCR in/Out

아티스트 로고 CG in/out - 5s

FD sign 후 무대 시작

공연 R/T 약 5min

MC 뜨거운 열기의 여운이 가시질 않는 무대였습니다. 무대를 듣고 나니 밴드 이독의 앞으로의 활동이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이독팀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MC 좌측으로 퇴장하며 아티스트 입장

(간단 Q&A - 앞으로 어떤 활동을 이어갈 예정인가요?)

밴드 이독이 말했듯이 오늘 이 무대가 누군가의 기억 한 편에 잔향처럼 오래 남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뜨거운 무대 보여준 이독 밴드에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MC 중앙으로 등장하며 아티스트 퇴장

MC 정말 열기가 엄청나네요. 이 뜨거운 공기를 식힐 필요가 있어보이죠?? 이번 무대는 노래가 아닌 춤으로써 정말 청량하고 시원한 열정을 보여주는 무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춤하면 디키즈, 디키즈 하면 춤이죠.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최고의 댄스 동아리 디키즈 팀이 선보이는 무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아티스트 소개 VCR in/Out

아티스트 로고 CG in/out - 5s

무대 시작

공연 R/T 약 3min

MC 꿈을 향한 열정이 그대로 녹아든 무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댄서 분들의 퍼포먼스를 보면서 저도 모르게 따라 추게 되더라고요. 정말 합이 척척 맞는 모습을 보면서 이 무대를 위해 얼마나 많은 연습을 하셨을지 감도 안 오는데 짧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MC 좌측으로 퇴장하며 아티스트 입장

(Q&A : 무대 준비하면서 힘든 점은 없었나요?)

그렇군요. 이 갑판 위를 멋진 퍼포먼스로 가득 채워주신 우리 디키즈 팀원 분들에게 다시 한 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MC 중앙으로 등장하며 아티스트 퇴장

MC 네.. 무대가 끝났는데도 갑판 위 공기가 열정과 열기로 가득 차있는데요.
너무 열심히 즐겼더니 갈증 나지 않나요?? 동아오츠카 측에서 저희 아티스트를 위해 포카리스웨트를 협찬해주셨습니다!! 중간 광고 보시고 포카리스웨트처럼 청량하고 에너지 넘치게 향해 해보시죠!!

프로그램 CG out

중간 광고 VCR in

프로그램 CG IN

MC 네 여러분 체력 괜찮으신가요?? 향해를 시작한지 얼마 안된 것 같은데 점점 끝을 향해 다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은 무대도 힘차게 나아가볼까요?

MC 쉽 없이 달려가다 보니 어느덧 향해의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여운이 가시질 않는데 앞으로 단 한 무대만이 남아 있다고 하니 아쉽고 벌써부터 그리워지는데요. 그래도 끝까지! 꿈을 향한 그 마음 잊지 않고 달려가 볼까요??
오늘의 마지막 무대입니다. 동아방송예술대학교를 빛내는 최고의 댄스 동아리 디키즈가 엔딩을 장식합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아티스트 소개 VCR in/Out

아티스트 로고 CG in/out - 5s

무대 시작

공연 R/T 약 3min

MC 와.. 정말 마지막을 장식하는 무대에 걸맞는 퍼포먼스였습니다. 지금 벅차오름과 청춘의 감정들이 이 갑판 위를 가득 메꾸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보이시나요?? 디키즈 팀분들도 지금 이 순간이 되게 의미있을 것 같아요. 이순간을 빌어 함께 열심

히 무대 준비한 팀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MC 좌측으로 퇴장하며 아티스트 입장

(간단 Q&A : 열심히 무대 준비한 팀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정말 멋진 무대 해준 우리 디키즈 팀에게 다시 한 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MC 중앙으로 등장하며 아티스트 퇴장

엔딩 멘트

MC 자..! 이렇게 해서 꿈을 향한 청춘들의 무대가 끝이 났는데요! 어떠셨나요?
저는 솔직히 오늘 무대 보면서 생각했어요. 꿈이란 게 거창한 게 아니구나. 이 갑판 위에서 진심을 다해 타오르는 것. 그게 꿈이구나.
이 친구들, 오늘 목적지 없이 떠났잖아요. 근데 어때요, 여러분?
이보다 더 완벽한 항해가 있을 수 있을까요?
목적지가 없어도, 방향을 몰라도 닻을 올리는 용기! 그 마음 하나만 가지고 있다면!
항해는 반드시 빛날겁니다.

MC, MC석에서 스튜디오 중앙으로 이동하며 멘트

언타이틀드호의 항해는 오늘이 끝이 아닙니다.
아직 보이지 않지만 반짝일 새로운 청춘들을 위해!
이 친구들의 꿈이 계속되는 한, 우리의 바다는 계속됩니다!
그럼 다음 항해에서 또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항해, 정말 빛났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의 항해를 도왔던 안내원,
임영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로그램 CG out

아웃트로 시퀀스 VCR in

광고 in